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건강보험재정은 2008~2009년도의 단기 흑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의료비 증가, 요양병원 증가 등 여러가지 재정 불안요인을 안고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급여비 증가 억제, 국고 증액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건강보험 재정 현황

- 2008년도와 2009년 8월까지 단기흑자를 기록하여 2009년 8월 기준 약 3조 3천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9년 8월말 기준 1조85억원의 단기흑자와 3조2703억원의 누적흑자는 정부지원금 조기수납과 연말정산액 선수납 등에 기인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의하면 2009년 말 기준 약2,359억원의 단기흑자와 약2조4,977억원의 누적흑자가 예상됨
 - 이는 경제침체, 기후영향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의료이용 자제현상으로 해석됨.

〈표 1〉건강보험 재정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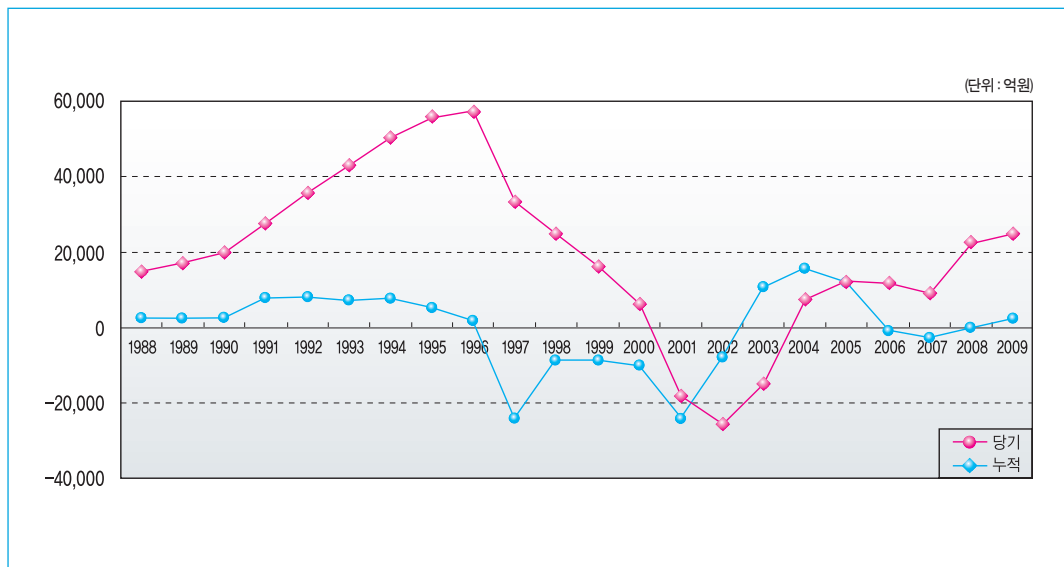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8월기준
수입	계	89,934	116,423	138,903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213,698
	보험료등	74,407	90,173	108,764	133,993	150,892	166,377	185,514	215,979	248,300	177,639
	국고지원금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28,299
	담배부담금	-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7,760
지출	계	100,024	140,511	146,510	157,437	170,043	191,537	224,623	255,544	275,412	203,613
	보험급여비	90,321	132,447	138,993	149,522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196,420
	관리운영비등	9,703	8,064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10,464	7,193
당기수지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747	△2,847	13,667	10,085	
누적수지	5,979	△18,109	△25,716	△14,922	757	12,545	11,798	8,951	22,618	32,703	

주 : 현금흐름 수지에 의한 재정입.

2. 건강보험 재정추이

-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은 그 성격상 매년 급여비 등 지출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 인상 및 국고 지원금 증액 등 수입 확보를 통해 당기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단, 외부적 충격 등에 따른 상황 대처를 위해 일정액의 누적적립금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그림 1]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 건강보험 재정 추이

- 전체 재정 규모는 5~6년을 주기로 두 배씩 커지고 있는 상황임.
- 1998년도에 약 7.9조원이던 총 수입이 5년만인 2003년에 2배 이상증가하여 약 16.8조 원에 이르렀고 다시 6년만인 2009년에 거의 2배에 이르는 약 31.3조원으로 예상됨.
- 1998년에 약 8.7조원이던 지출도 11년이 지난 2009년에 300%이상 증가하여 약 30조 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됨.
- 1997년 건보재정 통합 발표 이후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2001년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재정위기를 경험한 바 있음.
- 2001년 재정 위기 이후 재정안정대책 시행으로 2004년 누적수지 흑자를 회복했으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06년과 2007년에 다시 당기적자가 발생하여 누적적립금이 감소함.

- 2008년도와 2009년 8월까지 단기흑자를 기록하여 2009년 8월 기준 약 3조 3천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그러나 단기흑자는 정부지원금 조기수납과 연말정산액 선수납 등에 기인하고 있어 2009년 말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2359억원의 단기흑자와 2조4977억원의 누적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급여비

- 지난 10년간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14.24% 늘어남.
2001년 재정안정화대책 시행(02~'04), 보장성 강화 시행(05~'07) 등의 외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평균 12~13% 정도 증가하는 추세
재정위기 이후 최근 5년간 평균도 12.7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건강보험 급여비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평균	5년평균
급여비	90,418	131,654	136,696	150,278	164,293	183,669	214,392	245,614	264,948	299,714	-	-
증가율	14.70%	45.60%	3.80%	9.90%	9.30%	11.80%	16.70%	14.60%	7.87%	13.12%	14.24%	12.78%

□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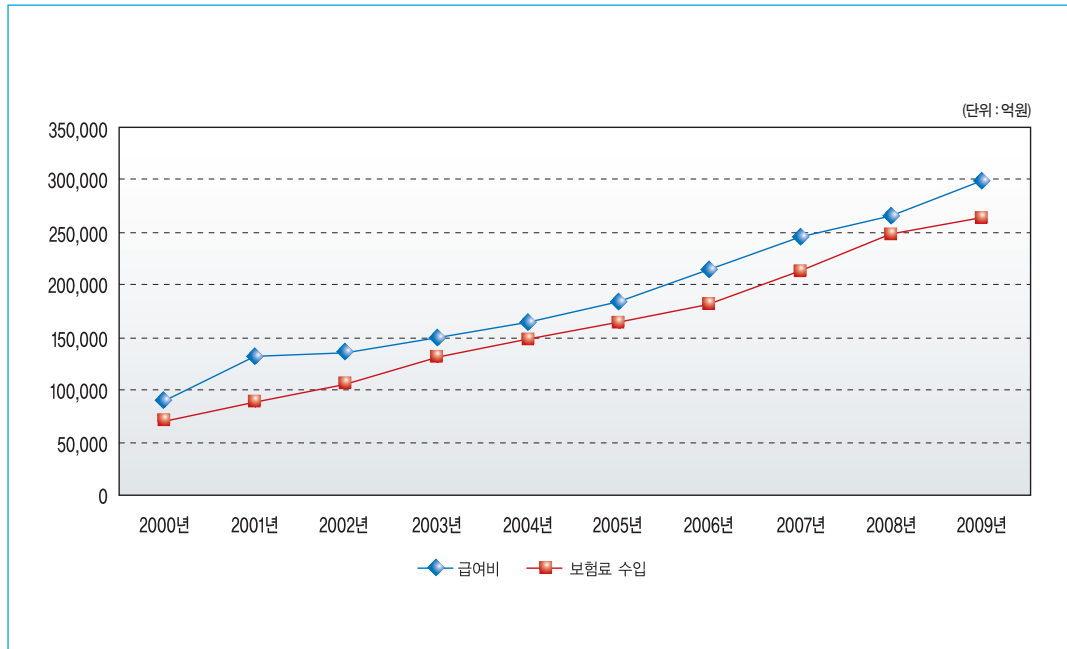
- 지출 증가세를 감당하기 위한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15.57% 증가하였으며,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한 순수 보험료율 인상도 매년 6~8%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09년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도입 이후 처음으로 보험료율 동결
 - 최근 5년은 증가율이 둔화되어 평균 약 12.18% 증가함.

〈표 3〉 건강보험 보험료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평균	5년평균
보험료수입	71,846	88,516	106,466	131,807	148,745	163,864	182,569	212,530	248,300	264,262	-	-
증가율	17.70%	23.20%	20.30%	23.80%	12.90%	10.20%	11.40%	16.40%	16.83%	6.43%	15.57%	12.18%
보험료율 인상률	20%	6.70%	8.50%	6.75%	2.38%	3.90%	6.47%	6.50%	0.00%	-	-	-

[그림 2] 연도별 보험료 수입 및 보험급여비 증가추이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인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은 2001년 재정위기 때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국고지원과 담배부담금의 합은 법적으로 보험료수입의 20%가 되어야 함.
- 담배부담금은 10년평균 12.89%, 5년평균 10.38% 증가하였으나, 2011년까지 한시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함.

<표 4>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추이

구분	(단위: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년평균	5년평균
국고지원금	15,527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8,039	-	-
증가율	69.06%	-1.92%	7.94%	2.79%	-3.05%	3.62%	-5.77%	12.94%	24.55%	10.47%	5.89%	-
담배부담금	-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	-
증가율	-	-	-	46.77%	2.84%	47.74%	4.44%	0.12%	5.82%	0.22%	12.89%	10.38%

3. 건강보험 재정 지출증가요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2009년-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건강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 2009년에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별 차등화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으로 6100억원의 보장성강화 예산이 추가로 소요

보장성 항목	소요재원	시행 시기
○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 보험료 하위 50%(400~200만원), 50~80%(400~300만원), 80%이상(400만원)	1,800억원	'09.1월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1,400억원	'09.7월
○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1,300억원	'09.12월
○ 치아홈메우기	1,300억원	'09.12월
○ 한방물리요법	300억원	'09.12월
총액	6,100억원	

- 2010년은 MRI 급여 확대와 암 등 고액 진료비 부담 완화 등으로 6,510억원이 소요

보장성 항목	소요재원	비고
○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관절 급여 포함)	900억원	
○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및 소모품 보험적용	400억원	
○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5%)	300억원	
○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30~50%~5%)	80억원	
○ 결핵환자 본인부담 경감(30~50%~10%)	200억원	
○ 병용투약 항암제, 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보험적	2,200억원	
○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 적용	830억원	
○ 치료재료 급여전환(1단계)	1,000억원	
○ 출산진료비 지원확대(20~30만원)	600억원	
총액	6,510억원	

□ 노인의료비 증가

-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급여비 중 노인급여비의 비중도 계속 커지는 추세
-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9.6%의 노인이 29.9%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음.

〈표 5〉 노인 의료비 증가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노인 구성비	6.9	7.2	7.5	7.9	8.3	8.6	9.2	9.6
총진료비 중 노인	17.7	19.3	21.2	22.8	24.4	25.9	28.2	29.9

- 더 큰 문제는 노인 1인당 진료비가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보다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임.

〈표 6〉 인구1인당 진료비와 노인1인당 진료비의 비교

(단위 : 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구1인당진료비	384,727	403,598	440,356	475,092	524,593	599,260	677,319	723,545
노인1인당진료비	983,368	1,086,971	1,242,751	1,370,487	1,549,492	1,804,583	2,182,101	2,267,817
노인1인/인구1인	255.6	269.3	282.2	288.5	295.4	301.1	322.2	313.4

주 : 지수란 인구 1인당 진료비를 100으로 봤을 때, 노인 1인당 진료비를 의미

□ 요양병원 증가

- 노인인구 증가는 요양병원의 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급여비 급증야기

〈표 7〉 2003 ~ 2008 요양병원 증가 추이

(단위 : 개, 병상,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상반기)
기관수	202	360(78.2)	592(64.2)	690(16.6)	733(16.7)
병상수	24,294	42,180(73.6)	64,333(52.5)	74,984(16.6)	81,897(23.3)
총진료비(억원)	1,570	3,187(100.1)	6,736(111.4)	9,988(48.3)	6,069(33.9)

주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시설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높고 사회적 인식도 양호하여 요양병원 급여비는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 있음
- 노인 및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특례(10%), 연금 수급으로 경제적 여유 확대, 요양보험에서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 요양병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 요양병원의 증가 및 병상수 증가는 다른 의료기관의 증가율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기타 만성질환의 증가, 국민의 소득증가,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재정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음.

□ 본격적 고령사회 진입,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12 ~ 13% 정도의 급여비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

- 더욱이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료비는 외국과 비교할 때 제일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09년 약 30조원인 보험급여비는 별도의 보장성 확대 없이도 5년 뒤인 '12년에는 최소 53% 늘어난 4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미래전략위원회 추정)

신현웅(사회보험연구실 부연구위원)_ 문의사항 : shinhw@kihasa.re.kr

보건·복지 Issue & Focus 는

- 주요 정책고객 및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여하고자 주간으로 발행하는 정책분석지입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
